

내 안의 평화,

타인의 평화



양선희 기자

전쟁중인 다른 나라의 어린 소녀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미래를 훔치려 할 때 화가 납니다. 우리는 내일도 엄마와 아빠가 살아 있기만을 바랄 때 슬퍼집니다”라는 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지난 3월 16일 한국을 찾아온 틱낫한 스님은 ‘화야말로 불행의 원인이며, 화를 다스려야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며 명상과 수련을 강조한다. 이 어린 소녀의 화를 명상과 수련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명상과 수련이 개인의 평화를 넘어 타인의 평화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적당한 화도 다스려야 하는가, 늘 그것이 궁금했다.

현대인의 영적 스승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 스님은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되었던 평화운동가로 이름이 높다. 게다가 최근 국내 출판시장에서는 스님의 책이 연달아 출간되었고, 스님의 조용하고 시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는 곳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심포지엄만 보더라도 자리가 없어 계단에 앉는 사람들이 많았을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발제자인 박성준 성공회대 평화학과 교수, 실상사 도법 스님, 이김현 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세 사람이 주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말하기에도 짧



은 시간일 터인데 명상에 다소 길다 싶을 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시작되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심포지엄을 찾은 사람들은 명상에 잠기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큰스님과 다른 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자 참석한 것이다.

그러나 심포지엄은 내내 시간에 쫓기며 진행되었다. 이 부분이 아쉬운 듯 도법 스님은 ‘이렇게 숨막히게 진행되어서야 어디 깨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도법 스님은 “우리 역사 속에도 원효와 같은 큰스승이 있었다며 그 깊은 지하수를 다시 끌어올려서 오늘날 다시 사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법 스님은 명상으로 시간을 보낸 터라 서둘러 발제를 해야만 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사람들이 ‘내 안의 평화’를 가져갔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평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얻어갔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이런 시각과는 별개로 틱낫한 스님이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가 충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종교서적의 저변확대라고 봐야 할지 일시적인 붐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지만 틱낫한 스님의 책과 말씀에는 어려운 교리가 없다. 어렵고 복잡한 것은 싫은 현대인에게 스님이 주는 매력은 스님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기존 종교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틱낫한 스님을 비롯한 종교의 언어를 자신만의 평화를 위해 해석하지 말고 타인과 함께하기 위한 책임성 있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이 먼나라까지 온 스님의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추진**